

오타루 번영기의 요정과 호텔

19 세기 후반에서 20 세기 초에 걸쳐 홋카이도에서 가장 호화로운 요정과 호텔은 오타루에 모여 있었으며, 부유한 어부들과 상인들이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봄에 오타루 앞바다에 산란하러 오는 청어 떼를 잡아 재산을 모았습니다.

19 세기 말까지 청어의 연간 어획량은 9 만 톤 가까이에 달했으며, '청어 골드러시'로 인해 노동자, 상인,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청어의 대부분은 비료로 가공되어 혼슈 남서부의 목화밭과 쪽밭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하되었습니다.

오타루에는 부유층을 위한 요정과 화랑이 생겼고, 일본 국내외에서 온 상인들을 수용하는 료칸과 호텔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이쇼 시대(1912 년~1926 년)에는 약 600 명의 게이샤가 오타루의 고급 요정에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요정들의 대부분은 20 세기 중반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철거되었습니다. 가이요테이 요정과 고테이 요정 등 현재도 남아 있는 건물이 몇 군데 있지만, 보수를 위해 폐쇄되었거나 민간 시설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와인드 호텔로 영업하고 있는 옛추야 호텔 건물은 오타루의 첫 유럽식 호텔입니다. 오타루를 찾는 무역상과 상인이 증가하면서 1931 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근처에 있는 옛추야 료칸의 별관입니다. 경영진은 모던한 고급 호텔이 외국인 손님에게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